



두바퀴의 행복 23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교 천수공원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열린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에 참가한 회원들이 자전거사양연합회 강사와 주행연습을 하고 있다. /최원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하철 공항역 집수정 '라돈' 전국 최고치

빛물 등 고인물 저장 공간...환경부 권고 기준 27배 초과 문화전당역은 12배...역사와 차단돼 인체 노출 가능성 낮아

광주도시철도 1호선 광주공항역 집수정(集水井·배수펌프실)내 라돈(1급 발암물질)농도가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집수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수정이 도시철도 역사(驛舍), 승강장과는 차단돼 있어 도시철도 이용객이 집수정 내 라돈을 흡입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23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각각방사선(라돈)의 직업적 노출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광주공항역 집수정에서 검출된 라돈농도는 4018.2 Bq(베크렐)/m³이었다. 이는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라돈 적정

권고 기준 148Bq/m³의 27.15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문화전당역 집수정도 1842.6Bq/m³(환경부 기준 12.45배)에 달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두번째는 경인교대입구역으로 3818.5Bq/m³였으며, 전국 지하철역 집수정의 평균 라돈 농도는 86.0Bq/m³이었다. 광주도시철도 역사의 평균 라돈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긴 했으나 환경부의 적정 권고 기준 이하인 113.7Bq/m³이었으며, 터널 내부는 평균 41.9Bq/m³였다. 전국 평균은 각각 30.6Bq/m³, 55.5 Bq/m³이었다. 집수정은 지하수·빛물 등 지하철 선로나 역사에 고인 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광주

도시철도 1호선에는 모두 24곳이 있다. 대부분 도시철도 선로보다 낮은 곳에 조성돼 있으며 차단문이 있어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다. 집수정에 모인 물은 배수 펌프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지표상에 배출된다. 현재 광주공항역과 문화전당역 집수정 내 라돈농도가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측은 해당 역들이 다른 곳에 비해 지하수 유출이 많고 라돈을 포함하고 있는 암반이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직원 10명이 1주일에 1~2회씩 정기적으로 배수펌프실 장비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인공방사선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라돈 등 자연 방사

성 물질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작업자들이 라돈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3년 전 해당 역 집수정에서 고농도 라돈이 측정되는 것을 파악하고 송풍기 등 저감대책을 마련했다"며 "집수정은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고, 정기점검 때도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한 특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하철역 집수정은 역사와 차단돼 있고 배기 시스템도 있어 일반 시민들이 라돈에 노출될 우려는 적어 보인다"면서도 "라돈이 높게 측정되는 정확한 이유와 배수펌프실 직원의 노출 정도 등은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출생 줄고 전출 늘고...활력 잃어가는 광주·전남

신생아 1분기 600명 감소...광주 전출, 전입보다 1237명 많아

올 1분기 광주·전남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광주를 떠나는 인구도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많아지면서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의 '2018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1분기 출생아는 2600명으로 1년 전(2900명)보다 300명 감소했다. 광주지역 1분기 출생아는 지난 2017년부

터 3000명 밑으로 떨어진 상태로, 통상적으로 1분기는 출산이 가장 많은 분기로 꼽히는 점을 고려하면 좋지 않은 신호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광주지역 1분기 출생아는 ▲2016년(3253명) ▲2015년(3408명) ▲2014년(3448명) ▲2013년(3503명) ▲2012년(3983명) ▲2011년(3896명) ▲2010년(3615명) 등으로, 3000명 밑으로 떨어진

해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광주의 1분기 합계출산율도 1.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7명 줄었다. 전남지역도 비슷하다. 1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4158명), 2016년(4015명)까지 4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3500명)부터 3000명 밑으로 추락한 상태다. 올 1분기도 3200명까지 감소했다. 전남의 합계출산율도 1분기 1.38명에 머무르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0.11명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다. 올해 1분

기 출생아 수는 8만9600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9100명(9.2%) 줄었다. 1분기 출생아가 8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은 월별 출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라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광주를 떠나는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4월 국내 인구이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지역 전출인구는 1만8307명으로 전입(1만7070명)보다 1237명 많았다. 전출인구는 1년 전보다 1012명 늘어났다. 3월 전출인구도 2만1431명에 달해 전입(2만144명)보다 1287명이 더 많았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 해질 19:26 | 달돋이 14:18 | 달질 02:22

미세먼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11/26	보성	맑음	8/25
목포	맑음	13/23	순천	맑음	12/27
여수	맑음	15/25	영광	맑음	9/24
나주	맑음	8/26	진도	맑음	11/24
완도	맑음	12/26	전주	맑음	11/26
구례	맑음	8/27	군산	맑음	11/24
강진	맑음	9/25	남원	맑음	8/26
해남	맑음	10/25	홍산도	맑음	13/21
장성	맑음	8/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남서	남~남서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남서	남~남서	남~남서	0.5~1.5	남~남서	0.5~1.0
남~남서	남~남서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남서(동)	남~남서(동)	남~남서	0.5~1.5	남~남서	0.5~1.0
남~남서(서)	남~남서(서)	남~남서	1.0~2.0	남~남서	1.0~1.5

◇생물지수

- 식중독: 관심
- 자외선: 매우높음
- 미세먼지: 나쁨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34	09:54
	15:30	22:33
여수		
	11:24	04:59
	23:43	17:53

◇주간 날씨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	☀	☀	☀	☀	☀	☀
14/27	16/28	15/28	16/26	15/27	15/27	16/28

소비자원,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라돈침대에 대한 소비자상담 3741건이 접수됐고 이중 180명이 넘는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가분발'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려진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집단분쟁사건은 60일 이내에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되며, 조정이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김용희기자 kimyh@

전남 여성 범죄 한 해 2000여건

경찰청 데이트 폭력 등 적극 대응 100일 계획 추진

전남지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 불법촬영(몰카) 등 여성대상 악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남 관내 여성 대상 범죄는 2015년 2369건에서 2016년 2484건, 지난해 237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카메라불법촬영 범죄는 2016년 60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16건(26%)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남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몰카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악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청은 2부장을 추진본부장으로 하는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했으며, 범도 수사 및 예방, 피해자 보호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청은 특히 범죄 발생시 신속 수사,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한편 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범·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남청은 또 다음달 15일까지 민관 실태조사단을 각 경찰서별로 구성하고, 범죄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